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9월 11일 기준 한 주간 3,877명이 방문하였고, 907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34,044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05,02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유튜브 214건(21%)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SNS 188건(19%), 현수막 94건(10.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주간경향 9월 8일자 보도, 그리고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에서 김어준 씨가 민주당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보도한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또한 TV조선 유튜브 9월 4일자 영상에서 민주당을 ‘반일·반미 세력’으로 규정한 보도, 한미일보 9월 8일자 보도에서 ‘당내 친문·친명 갈등’을 근거 없이 보도한 건, 그리고 조선일보 9월 10일과 11일자 보도에서 민주당의 입법활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아울러 조선일보 7월 31일자 방송3법 관련 보도는 민주당의 반론을 기사 하단에 기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18건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정청래 당대표 연설과 특검법 합의 파기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을 강조하고 보수 패널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214건의 유튜브 제보 중, 故대도서관의 죽음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죽음으로 연결하는 영상 등 총 13건의 영상을 구글 측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문(커뮤니티+SNS) 제보 건수는 총 269건입니다. 이 가운데 SNS(인스타그램)에서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릴스)’이 접수되었고 제보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법적 대응 예정입니다. 이외 제보 건들에 대해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 제작·유통채널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94건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9건 신고 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9건입니다.

경찰 고발 보고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는 지난 9월 6일 게시한 영상에서, 고(故) 대도서관의 사망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사망과 연관 지으며 마치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민주당은 해당 운영자를 즉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걸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제보 참고자료

